

北韓의 佛教寺院址 출토 高句麗, 渤海 佛像 연구

양은경¹⁾

目 次

- I. 머리말
- II. 北韓 내 高句麗 渤海 寺院址와 佛像의 出土狀況
- III. 佛像이 出土된 寺院址의 分布와 都城과의 관계
- IV. 北韓 내 高句麗와 渤海 佛像의 繼承問題
- V. 맺음말

I. 머리말

지금까지 발견된 고구려 불상은 단독 혹은 삼존상의 배치형식을 이룬 금동제품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전체 높이는 30cm가 되지 않는 예가 대다수이며 북한, 남한, 중국 길림성에서 출토되고 있다. 발해 불상은 단독, 이불병좌상, 삼존상의 금동, 석, 소조 등 다양한 재질의 불상이 발견되었다. 특히 발해의 삼경성, 동경성, 증경성에서 집중적으로 출토되었고 크기도 다양하다.²⁾

기존의 고구려 불상에 대한 연구는 북한, 남한에서 출토된 예들 모두 연구한 경우가

1) 釜山大學校 考古學科

2) 金理那, 1996, 「高句麗 佛教彫刻樣式의 展開와 中國 佛教彫刻」, 『高句麗 美術의 對外交涉』, 禮耕, 77~121쪽; 문명대, 2006, 「고구려 조각의 양식 변천」, 『한국의 불상 조각 I-三國時代 佛教彫刻史 研究』, 예경, 177~186쪽; 양은경, 「대륙과 해양을 품은 고구려 불교조각」, 『선사와 고대』, 2008.06, 출판예정; 駒井和愛, 「渤海國の二佛竝座石像」, 『中國都城·渤海研究』, 雄山閣, 1977, 169~174쪽; 林碩奎, 「渤海 半拉城 出土 二佛竝座像의 研究」, 『佛教美術研究』 2, 1996, 89~107쪽; 林碩奎, 「東京大 所藏 渤海佛像의 現狀과 性格」, 『高句麗研究』 6, 1998, 371~398쪽; 문명대, 「渤海 佛像彫刻의 流派와 樣式 研究」, 『강좌 미술사』 14, 1999, 34~40쪽; 최성은, 「渤海 佛教彫刻의 새로운 考察-中國, 日本 古代彫과 比較를 중심으로」, 『高句麗研究』 26, 2007, 128~142쪽; 양은경, 「中國 遼寧省博物館 所藏 金銅佛像에 대한 研究」, 『CHINA研究』 4, 2008.2, 143~147쪽.

많으며, 발해 불상은 상경성, 동경성 출토품에 대한 연구가 중심이 되어 왔다.³⁾ 또한 기존의 고구려, 발해 불상에 대한 연구는 명문분석과 조각양식에 기초한 편년설정, 중국 불상양식과의 영향관계에 대해 집중되어 왔다. 따라서 불상이 출토된 출토지점의 분포, 출토지에 대한 성격규명, 출토지와 당시 도성과의 관계 등 불상의 출토지 자체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편이다.

고구려의 영토는 현재 북한, 중국에 위치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고구려 멸망 이후 이 지역에서는 발해가 건립되어 고구려 문화들 전반적으로 계승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고구려의 수도로써 불교문화들 찬란하게 꽃피웠던 평양의 불교조각이 이후 북한 영역내의 발해 불상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에 대한 연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중국 동북지역의 고구려, 발해 불상의 실물을 접하기 어려운 지금, 북한 내에서 출토된 고구려와 발해 불상에 대한 출토지 정리와 계승문제들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작업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에 필자는 우선 북한 내 불교사원지에서 출토된 불교유물에 대해 정리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불상이 출토된 사원지의 분포지에 대해 그 성격과 당시 도성과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북한 내 불교사원지에서 출토된 고구려, 발해 불상 사이의 전통성과 계승문제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하고자 한다.

II. 北韓 내 高句麗, 渤海 寺院址와 佛像의 出土狀況

북한 내 고구려, 발해시기 사원 유적지에 대한 발굴과 불상의 출토현황에 대해서는 시기별로 구분하여 사원 유적지의 분포와 불상 출토 현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1. 高句麗 寺院址와 佛像의 出土狀況

지금까지의 발굴성과 혹은 불상의 출토들 통해 고구려 사원 유적지로 확인되었거나 추정되는 지점은 평양시 일대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기타 평안남도에도 예가 있다.

3) 金理那, 1996, 「高句麗 佛教彫刻樣式의 展開와 中國 佛教彫刻」, 『高句麗 美術의 對外交渉』, 龍耕, 77~121쪽; 문명대, 2003, 「고구려 조각의 양식 변천」, 『한국의 불상 조각 I-三國時代 佛教彫刻史 研究』, 예경, 177~186쪽.

(1) 平壤일대⁴⁾

고구려 사원 유적지로 확인되었거나 추정되는 곳으로는 淸巖里 金剛寺址, 청암리토성 부근 건물지, 上五里사지, 平川里사지, 土城里사지, 定陵寺址, 重興寺址, 영명사지, 樂사지 등이 있다.⁵⁾ 이중 불상 혹은 금동광배, 금동장식물 등 불교조각과 관련된 유물이 출토된 곳으로는 정릉사지, 청암리사지, 상오리사지, 평천리사지, 토성리사지가 대표적이다. 重興寺址, 영명사지에서는 불상은 출토되지 않았으며 당간지주의 존재 혹은 사원지만 확인되었다.

1) 定陵寺址와 불교유물

정릉사지는 평양시 중심에서 동남쪽으로 22km 떨어진 力浦區域 戊辰里 왕릉동에 위치한다. 정릉사는 고구려 건국시조 무덤으로 추정되는 동명왕릉의 앞쪽에 자리잡고 있어 동명왕릉의 廟刹로 여겨지며, 주위에는 20여기가 넘는 고분이 소개한다.⁶⁾ 1974년 발굴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중문, 답, 금당, 강당 등의 건물지가 확인되었다. 회랑에 의해 3개의 寺域으로 구분되고, 가운데 사역의 평면배치는 팔각형 목당을 중심으로 금당이 좌, 우, 뒷편에 배치된 1답3금당식이다.⁷⁾

정릉사지에서는 기와, 토기, 벽돌, 금동장식물 등이 출토되었으며 “定陵”, “陵寺”란 글자가 새겨진 토기편들을 통해 이곳이 정릉사임이 밝혀졌다.⁸⁾ 금동장식물은 꽃모양을 이루며 잔존 높이는 23.2cm이다.⁹⁾ 윗부분은 3엽으로 갈라져 있으며 아랫부분의 중앙 부에는 축이 부착되어 있어 어딘가에 꽃은 흔적이 역력하다. 이 금동장식물은 광배 혹은 금동장식물에 부착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2) 淸巖里寺址(金剛寺址)와 불교유물

청암리사지는 평양시 대성구역 청암리토성 안쪽에 소개한다. 이 사원지는 1938년 일제의 朝鮮古蹟研究會 平壤研究所가 발굴을 실시하였으며 당시 팔각 목단지, 좌우 뒷편의 방형 금당지를 확인하였다. 또한 이들은 『三國史記』高句麗本紀 文咨王七年條, 『高麗史』卷11 世家 11, 『東國輿地勝覽』卷51의 기록에 근거하여 이곳을 문자왕이 497년 창건한 金剛寺로 추정하였다.¹⁰⁾ 이후 북한학자 장상철과 리화선은 인근의 지명,

4) 본문에서의 북한 내 불교사원지의 소개지는 발견 당시의 행정지명을 기준으로 하겠다.

5) 국립문화재연구소, 『北韓文化財解説集Ⅱ-寺刹建築篇』, 1998, 261쪽.

6) 文化財管理局 文化財研究所, 『北韓文化財調査報告書-第5冊 北韓文化財圖誌』, 1993, 23~24쪽.

7) 『東明王陵과 그 부근의 高句麗遺跡』,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78, 109~216쪽; 金東賢, 「高句麗의 定陵寺址」, 『전통문화』 193, 1983.8, 48~54쪽; 金正基, 「高句麗 定陵寺址 및 土城里寺址 發掘報告概要와 考察」, 『佛敎美術』 10, 1991, 4~14쪽.

8)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조선유적유물도감』 3권-고구려전 1, 민족문화, 1993, 242~243쪽.

9)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조선유적유물도감』 4권-고구려전 2, 민족문화, 1993, 273쪽.

10) 小泉願夫, 「平壤淸巖里廢寺址の調査」, 『昭和十三年度古蹟調査報告』, 朝鮮古蹟研究會, 1940, 5~19쪽; 小泉願夫, 『朝鮮古代遺跡の遍歴-發掘調査三十年の回想』, 六興出版, 1986, 339~344쪽.

문헌기록, 도량형 등에 근거하여 이 사원지를 고구려 금강사임을 비판적으로 재확인하였으며 지금은 통설로 인정되고 있다.¹¹⁾

발굴당시 “쑥”자가 새겨진 기와편과 금동비천상, 금동꽃장식물 등이 출토되었다.¹²⁾ 금동비천상, 금동꽃장식물 등은 금동광배의 일부분을 구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3) 淸巖里土城 부근 건물지와 불교유물

1950년대 평양시 대성구역 청암리토성 부근에서 도로보수 공사 중 금동관 2점을 비롯하여 금동장식물, 금동광배 등이 출토되었다. 부근에서는 인골과 고구려 기와편이 함께 발견되었는데 인골은 금동제품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며, 고구려 기와편은 건축물의 존재를 시사함과 동시에 금동제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¹³⁾ 이 금동관, 금동장식물이 출토된 건축물의 소속 범위가 당시의 金剛寺에 속한 것인지는 아직 확인하기 힘들지만 관련성이 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① 金銅冠 2점

2점의 금동관은 한 쌍을 이루는 것으로 길이는 33.8cm, 폭은 16.5cm이다. 인동당초문, 보주문으로 투각된 環帶 윗쪽에는 8개의 화염 장식물이 세워져 있다. 관의 좌우 양쪽에는 垂飾이 아래로 늘어뜨려져 있다. 현재 조선중앙력사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제작시기는 5세기대 이전.¹⁴⁾ 고구려 말기,¹⁵⁾ 고구려¹⁶⁾ 등으로 추정하고 있다. 발견상황과 금동관의 수량, 형상에서 판단할 때 나무 혹은 乾漆 보살상의 머리에 씌웠던 보관으로 여겨진다.¹⁷⁾

② 金銅光背

직경은 4.1cm이며, 중앙의 두광부에 연화문의 금동편을 중심으로 하여 비갈 사방으로 돌아가면서 보주문, 인동당초문, 화염문 등이 투각되었다.

③ 金銅裝飾物

금동장식물에는 방형문, 연화문 등의 금동 투각 장식물과 이 장식물에 붙여 발견된 소불상, 방형 금동관 등이 있다. 필자는 이 장식물이 보살상의 금동관, 목걸이, 팔찌 등의 장신구나 불, 보살상의 광배 혹은 불감을 장식했던 부속품이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11) 리화선, 「고구려 금강사와 그 터자리구성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4, 1988, 39~41쪽, 최근 이강근은 남북한 학계에서 청암리사지와 금강사지의 용어에 대한 수용문제에 대해 다시한번 정리하였다(이강근, 「高句麗 八角建物址에 대한 연구」, 『선사와 고대』 29, 2005, 19~24쪽).

12) 梅原末治・藤田亮策, 『朝鮮古文化綜覽』 第四卷, 叢書社, 1947, 21~22쪽.

13) 황옥, 「평양 《청암리 토성》 부근에서 발견된 고구려 금동 유물」, 『문화유산』 5, 1958, 63~66쪽.

14) 궁성희, 「삼국시기 금관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3, 1992, 16쪽.

15) 황옥, 「평양 《청암리 토성》 부근에서 발견된 고구려 금동 유물」, 『문화유산』 5, 66쪽.

16) 조대일, 「고구려의 금속공예발전과 장공인들의 재능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4, 1988, 98~99쪽.

17) 양은경, 「대륙과 해양을 품은 고구려 불교조각」, 『선사와 고대』, 2008.06, 출판예정.

4) 上五里寺址와 불교유물

상오리사지는 평양시 大同郡 林原面 上五里에 위치하며, 1939년 일제의 朝鮮古蹟研究會 平壤研究所가 발굴 조사하였다. 당시 팔각 목탑지와 좌우측의 금당지를 확인하였다. 이 사원지 역시 팔각형의 목탑을 중심으로 금당이 3곳 배치된 1탑3금당식 평면배치를 이룬다.¹⁸⁾

발굴 당시 이 사원지에서 기와, 金銅風鐸, 金銅裝飾物 등이 출토되었다. 금동장식물은 사슴뿔모양 장식물과 당초문 수식물로서 당초문 장식은 보살상의 금동편의 장식이거나 장신구 혹은 불상과 보살상의 광배의 잔편으로 생각된다.

5) 平川里寺址와 불교유물

평천리사지는 평양시 평천구역 평천리에 소재하며, 지금까지 발굴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1940년부터 1946년까지 이곳에서 반가상, 광배, 대좌, 인왕상 등의 불상과 불교관련 유물이 집중적으로 출토되었기 때문에 고구려 당시 이곳에 불교사원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평천리 사원지에서 출토된 불교유물은 아래와 같다.

① 國寶 118號 金銅半跏像

1940년 평양시 평천리의 兵器廠을 확장하는 공사 중 한 노동자가 금동반가상 1구를 발견하여 김동현씨 부부에게 매매하였고 이후 국보 118호로 지정되어 현재는 삼성 리움미술관 소장되어 있다.¹⁹⁾ 반가상의 전체 높이는 17.5cm이며, 조각양식에 근거하여 6세기²⁰⁾ 혹은 7세기대에 주조된 것으로 여겨진다.²¹⁾

② 永康7年銘(551년) 金銅光背

1944년 위의 금동반가상이 출토된 지점인 평천리사지에서 금동광배 2구, 방형 금동편 9구, 투각인왕상 1구가 출토되었는데 현재 조선중앙력사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²²⁾ 이중 금동광배, 방형 금동편의 출토년대에 대해서는 북한학자들의 보고에 의하면 1944년설, 1946년설이 있으나 필자는 1946년설을 따르도록 하겠다.²³⁾ 금동광배는 높이

18) 小泉顯夫, 『朝鮮古代遺跡の遍歴-發掘調査三十年の回想』, 六興出版, 1986, 344~348쪽; 金聖雨, 「高句麗 佛寺計劃의 變遷-上五里寺址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4권 5호, 1988, 10, 233~243쪽.

19) 梅原末治, 「平壤平川里出土の金銅半跏思惟像」, 『朝鮮學報』 31, 1964, 4, 53~55; 金良善, 「平壤 平川里 出土 金銅半跏思惟像의 造成年代에 關하여」, 『古文化』 3, 1964, 10, 4~6쪽.

20) 金理那, 「高句麗 佛敎彫刻樣式의 展開와 中國 佛敎彫刻」, 『高句麗 美術의 對外交渉』, 禮耕, 1996, 110~112쪽.

21) 曠동석, 『KOREAN ART BOOK-금동부』, 예경, 2000, 74쪽.

22) 도유호, 「평천리에서 나온 고구려 부처에 대하여」, 『고고민속』 3, 1964, 29~34쪽; 田中俊明, 「高句麗の金石文-研究の現況と課題」, 『朝鮮史研究會論文集』 18, 1981, 132쪽; 久野健, 「平壤博物館の佛像」, 『MUSEUM』 490, 1992, 1, 4~6쪽.

23) 도유호는 1944년 출토되었다고 하였으나(「평천리에서 나온 고구려 부처에 대하여」, 『고고민속』 3, 1964, 29~34쪽) 『문화유산』 6의 유물 소개란에서는 1946년 출토되었다고 표기되어 있다(「중앙 역사 박물관에 소장된 유물 중에서」, 『문화유산』 6, 1962, 63~65쪽).

22cm이며, 본존상을 따로이 주조하여 광배의 결구공에 결합시켰다. 영강7년은 551년으로 추정된다.

③ 방형 대좌

1946년 영강7년명 금동광배와 함께 출토되었는데 금동 대좌편은 모두 9점이다. 크기에 근거하여 대, 중, 소형으로 구별할 수 있는데 비교적 완전한 중형의 제품은 가로 13cm 세로 9.8cm, 높이 3.5cm이다. 이는 모두 금동 대좌를 구성하는 좌편들이다.²⁴⁾

④ 金銅光背

1946년 출토되었으며, 전체 높이는 12cm이다. 보주형의 두광으로 추정되고 본존상이 배치될 머리부분에는 연화문, 그 외연부에는 화염문이 선각되었다. 주조년대는 7세기대로 편년된다.²⁵⁾

⑤ 金銅透刻仁王像

이 상은 1946년 보주형 금동광배와 함께 발견되었는데 가로 4.5cm, 세로 6.3cm이다. 사각형의 판 안쪽에는 은행나무 아래에 서 있는 인왕상 2구가 투각으로 조각되었다.²⁶⁾

6) 土城里寺址와 불교유물

일제강점시기 평양시 낙랑구역 토성리에서는 적갈색의 泥范 좌편이 3구 발견되었다. 이 니범의 출토지에 대해 梅原末治는 토성리²⁷⁾ 고이즈미 아키오(小泉顯夫)는 梧野里²⁸⁾ 구노 타케시(久野健)는 城貞相²⁹⁾ 『조선유적유물도감』에서는 貞栢³⁰⁾ 조선중앙역사박물관의 유물설명서에는 토성리라고 하였다.³¹⁾ 이처럼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이 니범이 출토된 곳은 낙랑구역에 속한다. 다시 말해 그 출토지는 낙랑토성지가 소재한 토성리와 그 부근지점인 오야리이므로 필자는 토성리로 보고자 한다.

니범의 좌편 중 현존 높이가 가장 높은 것은 16cm이다. 3구의 니범은 모두 불좌상의 일부분으로 선정인, 상현좌 등 6세기대의 불상 양식을 반영하였다.

한편 사원 유적지에서 출토된 불교유물 이외에 평양일대에서 발견되었다고 전해지고 현재 조선중앙역사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불상으로는 금동삼존상, 傳 왕궁터 출토 延嘉七年銘(539년) 금동삼존상이 있다.³²⁾

24) 「중앙 역사 박물관에 소장된 유물 중에서」, 『문화유산』 8, 1982, 84쪽.

25) 久野健, 「平壤博物館の佛像」, 『MUSEUM』 490, 1992.1, 8쪽.

26) 「중앙 역사 박물관에 소장된 유물 중에서」, 『문화유산』 8, 1982, 84쪽.

27) 梅原末治・藤田亮策, 『朝鮮古文化綜鑑』 第四卷, 養徳社, 1947, 32쪽.

28) 小泉顯夫, 『朝鮮古代遺跡の通歴-發掘調査三十年の回想』, 六興出版, 1986, 338쪽.

29) 久野健, 「平壤博物館の佛像」, 『MUSEUM』 490, 1992.1, 8쪽.

30)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조선유적유물도감』 4권-고구려편 2, 민족문화, 1993, 285쪽 도면 455의 설명.

31) 久野健, 「平壤博物館の佛像」, 『MUSEUM』 490, 1992.1, 5쪽 도 5의 사진설명과 金理弼 「高句麗 佛教彫刻樣式의 展開와 中國 佛教彫刻」, 『高句麗 美術의 海外交渉』, 龍耕, 1998, 107~109쪽.

32) 양은경, 「대륙과 해양을 품은 고구려 불교조각」, 『선사와 고대』, 2008.6, 출판예정.

(2) 平安南道 元五里寺址와 불교유물

원오리사지는 평안남도 平原郡 德浦里 만덕산 부근의 元五里에 소개한다. 1932년 원오리 사지에서 소조불상이 발견된 이후 1937년 일제의 朝鮮古蹟硏究會 平壤硏究所가 정식으로 발굴조사하였다. 이 사원지는 상단사원지와 하단사원지로 나뉘어지며 상단은 고구려, 하단의 사원지는 고려시대 유적으로 추정되었다. 이미 교란이 심각하여 사원의 배치형식을 파악하기 힘들었으나 폐사지 중앙의 大板石 주위에서 소조불, 보살상이 다량으로 출토되었다.³³⁾

당시 수습된 소조불좌상의 파편 수량은 204구, 소조보살입상은 108구였다. 불좌상의 높이는 19.5cm, 보살입상은 17.5cm이며, 조각양식은 모두 동일하여 한 틀에서 찍어 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³⁴⁾ 조각양식을 기준으로 소조상은 6세기 중후반에 제작된 것으로 여겨진다.³⁵⁾ 이 소조상들은 조선중앙력사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일본 동경국립박물관 오구라(小倉)켄리션, 正木미술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³⁶⁾

이외에도 평안남도 평원군 月逸里에서 금동대좌가 3구 출토되었는데,³⁷⁾ 이 지점 역시 불교와 관련된 건축물이 존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금동대좌는 현재 조선중앙력사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길이 6.6cm, 높이 3.8cm이다. 연화, 사자상, 향로 등으로 장식되었고 원형 배두리판이 가장 아랫부분을 구성하고 있다. 양련의 중앙부는 구멍이 있어서 불상 아래에 설치된 축을 이곳에 꽂아 불상의 대좌로 이용하였다. 전체적인 모습은 1982년 중국 山東省 泰安市 大汶口 衛鵠莊에서 출토된 금동연화대좌³⁸⁾와 유사하여 6세기대로 비정할 수 있다.

33) 小泉顯夫, 「泥佛出土地元五里廢寺址の調査」, 『昭和十二年度古蹟調査調査報告』, 朝鮮古蹟硏究會, 1938, 63~74쪽; 小泉顯夫, 「朝鮮古代遺跡の遍歴-發掘調査三十年の回想」, 六興出版, 1986, 333~337쪽.

34) 文明大, 「元五里寺址 塑佛像의 硏究-高句麗 千佛像 造成과 관련하여」, 『考古美術』 150, 1981, 58~68쪽.

35) 文明大, 「元五里寺址 塑佛像의 硏究-高句麗 千佛像 造成과 관련하여」, 『考古美術』 150, 1981, 61~68쪽; 金理那, 「高句麗 佛敎彫刻樣式의 展開와 中國 佛敎彫刻」, 『高句麗 美術의 對外交渉』, 禮耕, 1996, 104~106쪽.

36) 오구라(小倉)켄리션의 예는 아사이 카즈하루(淺井和春), 「寄贈小倉コレクション所收, 朝鮮三國時代の佛像について」, 『MUSEUM』 372, 1982, 18~19쪽 참고.

37)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조선유적유물도감』 4권-고구려편 2, 민족문화, 1993, 262쪽 도면 450의 설명; 고려대학교박물관, 『한국 고대의 Global Pride-고구려』, 동천문화사, 2005, 339쪽 사진 설명 참고.

38) 吉愛琴, 「泰安大汶口出土北朝銅鎏金蓮花座等文物」, 『考古』 6, 1989, 568~569쪽; 劉鳳君, 『山東佛像藝術』, 藝術家(臺北), 2001, 96쪽.

황해도 黃州에서는 활석계 단독불좌상, 谷山郡 花村面 蓬山里에서는 景四年辛卯銘 금동삼존상이 출토되었다. 경4년 금동삼존상의 전체 높이는 17.5cm이다. 광배 뒷면에 새겨진 명문 중 “辛卯”란 간지와 조각양식에 근거하여 이 불상은 571년 주조된 것으로 여겨진다.³⁹⁾ 황주 출토 단독 불좌상은 1947년 우메하라 스에지(梅原末治)·후지타 코우사쿠(藤田亮策)에 의해 개인 소장품으로 소개되었다.⁴⁰⁾

2. 渤海의 寺院址와 佛像의 出土狀況

북한지역에서 발굴되거나 확인된 발해시기 사원지로는 함경남도 북청군 청해토성 내부의 사지, 함경남도 신포시 오매리사지, 함경북도 명천군 개심사지가 있다. 이중 청해토성 내부의 사지, 오매리사지에서 불상이 출토되었다.

(1) 咸鏡南道

북청군 하호리에 소재한 청해토성에서 금동광배, 신포시 오매리사지에서 석불두, 금동불상 파편, 청동보살상, 금동명문판 등이 출토되었다.

1) 靑海土城 내 寺址와 불교유물

함경남도 북청군에서 동남쪽으로 14km 떨어진 남대천의 왼쪽편 荷湖里의 넓은 벌판에 靑海土城이 소재한다.⁴¹⁾ 이 토성은 일제시기와 1967년 초보적인 조사가 이루어진 이후⁴²⁾ 1972, 1985년 정식발굴이 이루어졌으나 아직 보고서는 출판되지 않았다.⁴³⁾ 평면은 장방형이며 토성의 둘레는 2132m이다. 발해시기의 주거지, 도로, 무기제작소, 병영터, 관청, 사원 유적지가 확인되었으며 구들, 기와, 토기도 출토되었다.⁴⁴⁾

청해토성에서 출토된 유물 중 불교유물로는 금동광배가 있다. 전체 높이는 16cm이며,⁴⁵⁾ 주형 거신광과 원형 두광으로 구성되어 있고 원형 두광에는 방사선문과 인동당초문, 주형 광배의 정상부와 가장자리에는 화염문으로 음각되었다. 문양들은 단순하고 조잡하며 두광 중심부의 원형 구멍에는 원래 단독의 본존상이 배치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39) 梁銀景, 「경사년신묘명 금동삼존불의 새로운 해석과 中國 불상과의 관계」, 『선사와 고대』 23, 2005.12, 37~44쪽.

40) 梅原末治·藤田亮策, 『朝鮮古文化綜鑑』, 養德社, 1947, 32쪽.

41) 김종혁, 「청해토성과 그 주변의 발해유적」, 『조선고고연구』 4, 1990, 20쪽.

42) 徐日範, 「북한 경내의 발해유적과 출토유물」, 『高句麗研究』 6-발해건국 100주년, 학연문화사, 2004, 214쪽.

43) 宋基豪, 「발해 유적의 조사와 연구 현황」, 『해동성국 발해』, 서울대학교박물관·영남대학교박물관, 2003, 194쪽.

44) 김종혁, 「우리나라 동해안 일대에서 조사발굴된 발해의 유적과 유물」, 『발해사연구논문집』 2, 백산자료원, 1997, 213~217쪽.

45) 국립중앙박물관, 『북녘의 문화유산』, 삼인, 2006, 88쪽.

2) 梧梅里寺址와 불교유물

함경남도 新浦市에서 동북쪽으로 약 13km 떨어진 곳에 梧梅里가 소재하며, 오매리에서 다시 서쪽으로 800m 정도에 오매리사지가 위치한다. 이 사원지에서 동북쪽으로 약 10km의 거리에 청해토성이 위치한다. 오매리사지는 1988년 북한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와 함경남도 역사박물관이 발굴을 진행하였다.

오매리사지는 압해산에 위치하며 분포범위는 남북 길이 100m, 동서 넓이 50m이다.⁴⁶⁾ 사지의 동서 중심축상에는 앞문, 중문, 돌문, 담, 금당이 배치되어 있다. 방형 담은 사원지의 중심에 위치하며, 동서 12.3m, 남북 12.5m이다. 목담으로 추정되며 금동관의 명문판독을 통해 이 목담은 고구려시기 건립되었으며 5층담이었다. 목담 주위의 좌, 우, 뒷편에서 금당터가 확인되어 가람배치는 1담3금당식을 이룬다. 좌금당 뒤에는 강당, 사원지의 가장 북쪽에는 승방터(절골 1호건축지)로 추정되는 건축지가 발굴되었다. 오매리사지는 문화층을 통해 고구려, 발해시기로 구분되며 평면배치 역시 1담3금당식이기 때문에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사지로 판단된다.⁴⁷⁾

담지를 중심으로 한 주위에서는 佛頭를 비롯하여 금동관, 금동장식물, 금동불 파편, 금동보살입상 등이 출토되었다.⁴⁸⁾

① 금동보살입상

전체 높이는 15cm이며 발해시기 문화층에서 출토되었다. 얼굴은 큰 편으로 삼면 보편을 쓰고 있다. 보편 좌우에는 관대가 아래로 늘어뜨려져 있다. 코가 크고 눈은 얇게 뜨고 있다. 목걸이, 영락, 팔찌를 걸치고 있다. 상체는 벗은 몸이고 하체에는 주름진 치마를 입고 있다. 두 어깨에서 아래로 늘어뜨려진 천의는 배 부분에서 교차되어 오른 팔 위를 지나거나 왼손에 쥐어졌다.

② □和三年銘 금동관

발해 문화층에서 출토된 금동관은 앞부분은 없어지고 뒷부분만 현존한다. 길이는 41.5cm이고 너비 18.5cm, 두께 0.3~0.5cm이다. 명문은 오른쪽에서부터 내려졌으며, 현존하는 글자는 12行으로 판별가능한 글자는 113자 정도이다. 이 금동관의 조성년대는 명문 끝부분에 새겨진 “□和三年歲次丙寅二月廿六日, 造成拜記首”⁴⁹⁾에서 “□和”와

46) 김종혁·김지철, 「신포시 오매리 금산발해건축지 발굴중간보고」, 『조선고고연구』 2, 1989, 11~16쪽; 김종혁·김지철, 「신포시 오매리 절골1호발해건축지 발굴보고」, 『조선고고연구』 2, 1990, 12~17쪽.

47) 한인호, 「금호지구 오매리절터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1, 1997, 13~15쪽; 한용길, 「발해 건축의 고구려적성격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2, 1992, 28~32쪽.

48) 조선유적유물도감 편찬위원회, 『조선유적유물도감』 8권-발해편, 조선유적유물도감 편찬위원회, 1991, 186~206쪽.

“丙寅”의 단어에 근거하여 546년으로 비정되고 있다. 또한 고구려 유물이 발해시기까지 전승된 것으로 얘기되기도 한다.⁵⁰⁾

(2) 咸鏡北道

불교 유물이 발견된 改心寺址는 함경북도 명천군에 위치하며 대웅전, 관음전 등 다섯 채의 건축물로 이루어졌다. 여기에서는 목함(木函)이 발견되었는데, 목함 속의 종이에 826년 개심사가 창건되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어 발해시기 사원임이 밝혀졌다.⁵¹⁾

위에서 서술한 내용을 간략하게 표로 정리하면 아래의 <표 1>과 같다.

<표 1> 북한 내 고구려, 발해 사원지와 불상의 출토 상황

時代	所在地	寺址名	發掘年代(年)	발굴기관	건물지	出土遺物
高句麗	平壤	力南區域 戊辰里 定陵寺址	1974	북한사회과학원 고고연구소	중문, 팔각 탑, 3금당, 강당	기와, 토기, 벽돌, 금동장식물
		대성구역 청암리 토성 안쪽 清巖里寺址 (金剛寺址)	1938	朝鮮古蹟研究會 平壤研究所	팔각 목탑지, 3금당지	기와, 금동미륵상, 금동꽃장식물
		대성구역 청암리 토성 土城 부근 건물지	1950년대	수습	건물지	금동관 2점, 금동장식물, 금동팔찌, 기와
		대동군 상오리 上五里寺址	1939	朝鮮古蹟研究會 平壤研究所	팔각 목탑지, 3금당지	기와, 金銅鳳鏤, 金銅裝飾物
		평천구역 평천리 平川里寺址	1940 - 1946	수습	확인안결	금동관가상, 금동팔찌, 금동대좌, 금동인왕상
		낙랑구역 토성리 土城里寺址	일제 시기	수습	확인안결	泥棺 卽면 3구
	平安南道	平原郡 元五里 元五里寺址	1937	朝鮮古蹟研究會 平壤研究所	교란심각	소조불, 보살상
渤海	咸鏡南道	북청군 하호리 靑海土城 내 寺址	1967, 1972, 1985	북한사회과학원 고고연구소	건물지	기와, 금동팔찌
		新浦市 梧梅里 梧梅里寺址	1988년	북한사회과학원 고고연구소, 함경남도 역사박물관	방형 목탑지, 3금당지, 승방	석불상, 청동보살상, 금동불상면, 금동관, 금동연꽃면, 토기면
	咸鏡北道	명천군 改心寺址			건물지	목함

49) 필자의 명문 판독은 국립중앙박물관, 『북녘의 문화유산』, 삼인, 2006, 86~87쪽의 사진을 참고하였음.

50) 김종혁, 「청해토성과 그 주변의 발해유적」, 『조선고고연구』 4, 1990, 22쪽.

51) 리준걸, 「함경남북도일대의 발해유적유물에 대한 조사보고」, 『조선고고연구』 1, 1986, 93~94쪽.

III. 佛像이 出土된 寺院址의 分布와 都城과의 관계

북한 내에서 발견된 고구려 불상은 평양에서 집중적으로 출토되었고 주위의 평안남도, 황해도에서 소수 출토되었다. 정식발굴을 통해 출토된 예로는 평양 정릉사지의 금동장식물, 청암리사지의 금동비천상·금동꽃장식물, 상오리사지의 금동풍탁, 금동장식물과 함경남도 원오리사지의 소조불상·소조보살상이 있다. 우연히 발견된 예로는 평양의 청암리토성 건물지의 금동판·금동광배·금동장식물, 평천리의 금동반가상·영강 7년명 금동광배·금동대좌·금동광배·금동투각인왕상, 토성리의 니뱌 불좌상과 평안남도 평원군에서 발견된 금동대좌, 황해도 곡산군에서 발견된 경4년 금동삼존상, 황해도 황주의 불좌상이 대표적이다.

정식발굴이 진행되었던 사원지 중 원오리사지, 청암리사지, 상오리사지는 각각 1937년, 1938년, 1939년에 발굴이 이루어졌으며⁵²⁾ 해방이후 1974년 정릉사지가 발굴되었다. 정릉사, 청암리사지, 상오리사지의 평면배치는 모두 팔각형 목탑을 중심으로 금당이 좌, 우, 뒷편에 배치된 1탑3금당식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러한 가람배치형식은 고구려 건축을 대표하는 건축유형으로 평가되고 있다.⁵³⁾

정식발굴은 없었으나 발견유물의 상황과 주위 유적지 분포와의 관련으로 미루어 평천리, 토성리의 건축지는 불교사원지로 추정된다.⁵⁴⁾ 이외에도 고구려 사원지로 알려진 예로는 평양의 영명사, 중흥사, 낙사리사지, 암사리사지, 대왕사,⁵⁵⁾ 황해도 봉산군의 토성리사지,⁵⁶⁾ 황해남도 안악군 월정리의 쌍계사지가 있다.⁵⁷⁾

고구려에 불교가 전래된 4세기부터 평양으로 천도한 5세기 중반까지 국내성 일대 지역에서는 많은 불사활동이 있었으리라 추정된다. 그러나 『三國史記』의 기록을 통해서 375년 소수림왕이 국내성에 창건한 이불란사와 성문사, 392년 광개토왕이 평양에 건립한 九寺 이외에는 거의 없다.⁵⁸⁾

52) 小泉顯夫, 『朝鮮古代遺跡の通史-發掘調査三十年の回想』, 六興出版, 1986, 333~348쪽.

53) 리화선, 『조선전축사』(1),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89, 87~96쪽.

54) 정찬영, 「평양성에 대하여」, 『고고민속』 2, 1986, 17쪽 주 1.

55) 리화선, 『조선전축사』(1),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89, 88쪽.

56) 남일룡, 「황해북도 봉산군 토성리 고구려 절터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4, 1987, 8~13쪽.

57) 「폐열사, 쌍계사터 조사보고」, 『조선고고연구』 2, 1993, 42~46쪽, 사원지의 위치나 유구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문헌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고구려 사원으로는 靈塔寺, 育王寺, 盤龍寺, 金剛寺, 珍丘寺, 大乘寺, 大原寺, 維摩寺, 中台寺, 開元寺, 燕口寺 등이 있다(양정식, 「고구려의 사원」, 『한국 고대의 Global Pride-고구려』, 동천문화사, 2005, 78~79쪽).

58) 최근 광개토왕 당시의 “평양”이라는 지명과 평양성은 현재의 평양시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길림성 遼民의 新城을 의미한다는 재미있는 의견도 펴져되었다(張福有, 「高句麗의 平壤, 新城與黃城」, 『高句麗歷史問題研究論文集』, 延邊大學出版社, 2005, 163~196쪽), 만약 이 주장대로 평양의 위치를 비정해 본다면 392년 광개토왕이 창건한 9사는 국내성에서 인접한 길림성 경내에

고구려는 長壽王 15년인 427년 國內城에서 平壤으로 수도를 옮긴다. 안학궁으로 궁성을 옮긴 이후인 5세기 중후반에도 불교사원의 건립은 계속되었을 것이다. 497년 문자왕이 청암리토성 내에 건립한 금강사는 대표적인 예에 속한다.

현재까지 고고학적인 발굴과 문헌기록을 통해 427년 천도한 평양의 도성은 평지궁성인 安鶴宮과 그 북쪽에 위치한 大成山城, 서쪽에 소재한 淸巖里土城, 남쪽의 청호리토성과 고방산성 일대로 추정되고 있다.⁵⁹⁾ 안학궁은 왕궁성이고, 관청시설과 주민들은 안학궁과 서쪽 청암리토성간의 지역과 안학궁과 남쪽의 고방산성 사이 즉 현재의 대성구역 일대에 거주하였다고 추정된다.⁶⁰⁾

이 일대에 소재한 고구려 사원지로는 청암리사지(금강사지), 상오리사지가 있다. 금강사는 청암리토성 내부, 상오리사지는 안학궁의 서남쪽에 위치한다. 다시말해 금강사, 상오리사지는 당시 도성 내부에 소재하였던 것이다.

586년 고구려는 안학궁에서 서남쪽에 위치한 長安城으로 궁성을 옮겼는데 장안성의 도성은 북성, 내성, 중성, 외성의 네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북성은 궁성의 보호성, 내성은 왕궁성, 중성은 행정기구가 있는 성, 외성은 백성이 거주한 곳이었다.⁶¹⁾ 특히 장안성의 외성은 전체 장안성 면적의 62%를 차지하며 내부(황부), 북부(흑부, 후부) 등 5부가 있었으며, 士庶가 거주하던 지역으로 상업, 수공업 등을 비롯한 모든 생산활동이 이루어진 장소로 추정되고 있다.⁶²⁾ 특히 이곳은 평지별판이 펼쳐진 곳으로 1954년의 발굴 당시 도시 리방유적이 확인되기도 하였다.⁶³⁾

북성에는 영명사, 중흥사가 소재하며,⁶⁴⁾ 외성에는 평천리사지, 장안성 남쪽의 낙랑성 외부에는 토성리사지가 위치한다. 북성은 궁성의 후원으로 이용되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⁶⁵⁾ 영명사, 중흥사는 왕실발원의 사원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평지별판의 외성 리방속에 소재한 평천리 사원은 주민 거주지 속의 사원이기에 발원자의 신분은 왕실, 일반백성을 모두 상정해 볼 수 있다.

세워졌으며 이 곳에 불상이 봉안되었을 것이다.

59) 魏存成, 『高句麗遺迹』, 文物出版社, 2002, 52~58쪽; 금경숙, 「위성사진을 통해서 본 고구려 도성체제」, 『위성사진으로 보는 고구려 도성』, 고구려연구재단, 2005, 180~181쪽.

60) 정찬영, 「평양성에 대하여」, 『고고민속』 2, 1988, 17~18쪽.

61) 최희림, 「평양성을 쌓은 연대와 규모」, 『고고민속』 2, 1987, 27~35쪽. 그러나 중성과 외성을 구분하는 성벽을 고려시대에 축조한 것으로 여기며 중성을 인정하지 않는 견해도 있다(채희국, 「평양성(장안성)의 축조과정에 대하여」, 『고고민속』 3, 1985, 20~27쪽; 정찬영, 「평양성에 대하여」, 『고고민속』 2, 1988, 13~20쪽).

62) 민덕식, 「고구려의 도성」, 『한국 고대의 Global Pride-고구려』, 동천문화사, 2005, 74쪽.

63) 한인호·리호, 「평양성외성안의 고구려도시리방과 관련한 몇가지 문제」, 『조선고고연구』 1, 1993, 13~18쪽.

64) 여효규, 「평양성」, 『南北共同遺蹟調査報告書-중보관 평양일대 고구려유적』, 고구려연구재단, 2005, 62쪽.

65) 임기환외, 「고구려의 세 번째 도성, 평양」 『위성사진으로 보는 고구려 도성』, 고구려연구재단, 2005, 188쪽.

안학궁을 중심으로 한 평양성은 장안성보다 축조시기가 상대적으로 빠르기 때문에 정릉사, 청암리사지, 상오리사지의 년대는 평천리사지, 토성리사지, 영명사, 증흥사 보다 이르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실제 평천리, 토성리에서 출토된 불상의 년대는 6세기 ~7세기대로 편년되기 때문에 586년 이후 고구려 도성으로써 장안성이 운영된 사실과도 서로 부합된다.⁶⁶⁾ 또한 위의 고구려 불교사원지의 분포를 통해 불교사원은 산성보다는 평지성에 소재한 예가 많음을 발견한다. 이는 산성과 평지성의 역할에서 알 수 있듯이 평지성은 일상생활을 하던 장소임에 반해 산성은 긴급시 대피하여 방어하는 기능을 하였던 사실과도 부합된다.⁶⁷⁾

북한 영역 내에서 발해의 금동광배, 불상이 출토된 불교사원지인 청해토성 내 사지, 오매리사지는 각각 함경남도 북청군과 신포시에 위치한다. 사원이 소재한 지명은 차이가 있으나 실제적으로 청해토성과 오매리사지는 서로 10km의 가까운 거리에 있다.

청해토성은 평지성으로 이 토성에서 살던 주민들의 무덤인 평리고분군과 그들의 불교예배처인 오매리 사원지는 모두 청해토성과 관련이 깊다. 청해토성 주위에는 거산성, 룡전산성, 안곡산성을 비롯하여 련결산 발해고분군이 있다.⁶⁸⁾

이처럼 청해토성이 위치한 지점은 발해와 관련된 유적과 유물이 많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 곳은 발해 남경 남해부가 위치한 곳으로 추정된다.⁶⁹⁾ 주지하다시피 발해의 지방행정 조직은 5京, 15府, 62州이며 5경, 15부 중 한 곳이었던 남경남해부가 현재 함경남도 북청군에 소재한다는 것이다.

북한 이외의 현재의 중국, 러시아 일대에서 발굴 조사된 발해 사원지는 上京城에 10개소, 東京龍原府의 관할범위 내에서는 8개소, 中京顯德府의 범위내에는 16개소, 연해주 내에서는 4개소 등 40여 곳이 확인되었다. 발해 불상 역시 상경, 중경, 동경, 연해주 등에서 출토되었다. 이러한 분포상황은 발해 영역내에서 정치, 경제, 문화가 발달된 지역에서 불교가 성행하였으며 그 결과 사원도 많이 건립되었음을 반영한다.⁷⁰⁾

청해토성과 오매리사지가 소재한 곳은 발해 당시 도성지 중 한 곳이었으며, 당시 교통로상 아주 중요한 위치였다. 즉 이곳은 발해의 주요한 대외 교통로 중의 하나였던 신라도가 존재한 곳으로, 신라도는 동경 용원부에서 함경도의 남경을 거쳐 동해안을

66) 양은경, 「대륙과 해양을 품은 고구려 불교조각」, 『천사와 고대』 28, 2008.6, 출판예정.

67) 고구려 도성의 특징 중 하나인 평지도성은 산성과 같이 하나의 방어체계를 형성하며 하나의 통일된 城체제인 평산성으로 발전해 나갔다(방학봉, 「고구려 도성의 변화발전과정으로부터 본 고구려 평지도성의 특징」, 『북방사논총』 1, 2004, 144~145쪽).

68) 리준걸, 「함경남북도일대의 발해유적유물에 대한 조사보고」, 『조선고고연구』 1, 1986, 93~98쪽; 김종혁, 「우리나라 동해안 일대에서 조사발굴된 발해의 유적과 유물」, 『발해사연구논문집』 2, 백산자료원, 1997, 213~235쪽.

69) 김종혁, 「청해토성과 그 주변의 발해유적」, 『조선고고연구』 4, 1990, 23쪽; 채태형, 「발해 남경남해부의 위치에 대하여」, 『역사과학』 3, 1991, 52~53쪽; 한규철, 「발해5경의 성격과 기능」, 『발해5경과 영역 변천』, 2007, 69~71쪽.

70) 박용연, 「고고학방면으로부터 본 발해의 불교문화」, 『발해사연구』 4, 1994, 239~242쪽; 方學恩 著·朴相尙 編譯, 『渤海의 佛敎遺蹟과 遺物』, 書景文化社, 1998, 137~141쪽.

따라 신라로 내려가는 교통로였다. 발해와 신라의 교역을 잘 대변해 주는 유적이 바로 청해토성과 오매리 사원지이다.⁷¹⁾

고구려에서도 활석 불상이 출토된 황해도 황주 역시 고구려 평양성을 방어하는 해양 방어 시설이 설치된 지점 중 한 곳으로 황해도 남부 해안 지대를 강화함과 동시에 교통상 아주 중요한 곳이었다.⁷²⁾

이처럼 북한에서 고구려, 발해 불상이 출토된 불교사원지가 위치한 지점은 당시 수도였던 도성지 혹은 교통노선상 중요한 곳이었다. 이러한 곳에는 거주하는 인구수가 많았을 것이며 그들의 종교활동에 필요한 불교사원 건립이 활발하였을 것이다. 또한 고구려, 발해인들은 평상시 평지성에 거주하였기 때문에 불상의 출토지 혹은 불교사원지는 산성 보다는 평지성에 소재한 경우가 더욱 많았다.

IV. 北韓 내 高句麗와 渤海 佛像의 繼承問題

고구려와 발해의 문화관계에 대해 일반적으로 발해 전기에는 고구려 후기의 요소들 계승한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건축문화, 매장문화, 복식문화, 생활문화 등에서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학계에서는 두 왕조의 역사적 계승성을 강조하고 있다. 종교면에서도 예외는 아니어서 불교와 그 결과물에서도 계승관계가 파악된다.

현존하는 고구려 불상은 대부분 6세기대로 편년되며, 출토지점은 평양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출토되었다. 재질은 금동상이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며 중국의 북위 말~북제대 조각양식과 밀접한 관련을 보인다.⁷³⁾

발해 불상은 상경성, 동경성, 중경성에서 집중적으로 출토되었다. 이중 이불병좌상을 중심으로 하여 동경성, 중경성 일대에서 출토된 소조불상, 석불상은 고구려 연가7년형 금동불입상, 원오리 출토 소조불보살상의 양식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즉 발해 전기(698~756년)로 편년되는 불상은 고구려 불상의 특징을 계승한 반면, 중기(756~818년)와 후기(818~926년)로 편년되는 불상은 상경성, 연해주 일대의 출토품이 중심이 되며 중국 唐의 불교조각과 영향관계가 밀접한 것으로 논의되었다.⁷⁴⁾

71) 김은국, 「영원한 남북 교섭의 창-발해와 신라」, 『새롭게 본 발해사』, 고구려연구재단, 2005, 107~109쪽.

72) 윤명철, 「고구려 해양사 연구」, 사계절, 2005, 128~130쪽.

73) 양은경, 「대륙과 해양을 품은 고구려 불교조각」 『선사와 고대』 28, 2008.8, 출판예정.

74) 駒井和愛, 「渤海國の二佛坐像石像」, 『中國都城・渤海研究』, 雄山閣, 1977, 169~174쪽; 林碩奎, 「渤海 半拉城 出土 二佛坐像의 研究」, 『佛教美術研究』 2, 1996, 89~107쪽; 林碩奎, 「東京大 所藏 渤海佛像의 現狀과 性格」, 『高句麗研究』 6, 1998, 371~398쪽; 윤명대, 「渤海 佛像彫刻의 流派와 樣式 研究」, 『강좌 미술사』 14, 1999, 34~40쪽; 최성은, 「渤海 佛教彫刻

이처럼 발해 전기 불상은 고구려 불상 양식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고 간주되는 반면 북한 내에서의 고구려와 발해 불상간의 계승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된 바가 없다. 이는 비교대상으로써의 현존 작품의 형제성에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고구려의 멸망과 더불어 평양은 신라의 영토로 귀속되었기 때문에 발해의 불상조성에 고구려 평양지역의 불상이 강한 영향력을 더 이상 행사할 수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668년 고구려의 멸망 이후 고구려인은 신라, 발해, 왜, 당, 요동, 북방으로 많이 흩어졌지만,⁷⁵⁾ 고구려 영토 내에 거주한 원고구려인들의 인구수가 여전히 가장 많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고구려 남부지역인 평양 일대지역과 예성강 일대는 신라의 영향권에 편입되었다.⁷⁶⁾

현재 조선중앙역사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통일신라시대 금동불입상들은 평양과 그 주변지역에서 출토되었다.⁷⁷⁾ 이 불입상들은 8~9세기대 통일신라 불상의 주조기법, 조각양식과 동일한 특징을 보인다. 통일신라시대 불상이 평양과 그 부근에서 많이 출토된다는 사실은 평양지역이 통일신라로 영토가 귀속된 사실을 잘 반영하고 있다. 결국 8세기대 이후의 평양지역의 불상에서는 고구려 불상양식은 더 이상 확인되지 않으며 새로운 唐양식을 반영한 통일신라 불상양식을 강하게 보이고 있다.

그러나 평양 이외의 발해 영토 속에 포함되었던 북한지역 불상의 특징은 이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함경남도 오매리사지에서 출토된 금동관은 고구려 유물이지만 발해 문화층에서 출토되었다는 사실, 이 사원지의 금당과 목탑의 배치가 전형적인 고구려 사원배치방식인 1탑3금당이라는 점 등은 이 불교사원지가 고구려시기 창건되어 발해까지 계속 사용되었음을 증명한다.

7세기대부터 계속된 고구려와 중국과의 전쟁에서 막대한 손실과 피해를 입은 지역은 요녕, 길림, 평양 일대로, 이 곳에 소개한 불교 건축물과 불상들은 당시 막대한 손실을 입었을 가능성이 높다. 상대적으로 동쪽에 위치한 함경남도 신포시와 북청군 일대 지역의 사원과 불상은 전쟁으로 인한 소실은 거의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고구려의 건축물을 비롯한 불상, 불교유물들이 이후 발해시기까지 계속해서 존재하였을 가능성은 아주 높다.

의 새로운 考察-中國, 日本 古代彫刻의 比較를 중심으로」, 『高句麗研究』 26, 2007, 128~142쪽; 양은경, 「中國 遼寧省博物館 所藏 金銅佛像에 대한 研究」, 『CHINA研究』 4, 2008.2, 143~147쪽.

75) 拜根興, 「高句麗 百濟 遺民關聯問題研究的現況與展望」, 『中國歷史地理叢論』 21, 2008, 152~153쪽.

76) 申滢植, 『統一新羅史研究』, 三知院, 1990, 99~106쪽; 임상선, 「발해의 건국과 국호」, 『새롭게 본 발해사』, 고구려연구재단, 2008, 15~17쪽; 강경구, 「신라의 북방 영토와 김유신」, 학연문화사, 2007, 247~435쪽.

77) 久野健, 「平壤博物館の佛像」, 『MUSEUM』 490, 1992.1, 6~9쪽; 文化財管理局 文化財研究所, 『北韓文化財調査報告書-第5冊 北韓文化財圖錄』, 1993, 141쪽.

오매리사지에서 출토된 금동보살입상은 삼면보관, 보관 양측에서 늘어뜨려진 관대, 세장하고 수려한 신체, X자형 영락, 중복된 U자형 천의, 길고 마른 얼굴형, 둥근 코 등은 북위, 수, 당대 초기 보살상의 양식이 복합적으로 확인된다. 즉 이 보살상은 발해시기 조성되었다 생각되지만 고식적인 특징도 여전히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고구려의 전통이 유지되고 있었다고 추정된다.

함경남도 청해토성에서 출토된 금동광배의 문양 중 화염문, 인동당초문은 고구려 광배에서 이미 보편적으로 성행한 문양들임에 반해,⁷⁸⁾ 전체적으로 간략화된 문양의 기법과 인동당초문의 배치와 형상 등은 발해시기로 간주된다. 발해로 편년되는 이 금동광배에서도 고구려적인 특징이 여전히 확인된다.

오매리사지 1호건축지(송방지로 추정)와 청해토성 내의 온돌 주거지에서 확인된 온돌시설은 상경용천부들 비롯한 기타 발해 유적지에서도 보이며 이 온돌은 고구려의 전통을 계승한 요소로 평가된다.⁷⁹⁾

결국 북한 내 발해 불교사원지에서 출토된 불교조각상과 광배에서는 새로운 요소도 보이지만 고구려적인 특징은 여전히 확인되고 있다. 이는 발해 불교사원지에서의 온돌시설, 사지 부근에서의 고구려 무덤의 존재 등에서도 고구려와 발해문화의 계승성을 엿볼 수 있다.

V. 맺음말

이상에서 북한 영역 내의 불교사원지에서 출토된 고구려, 발해 불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II장에서는 북한 내에서 불교유물이 출토된 불교사원지에 대해 고구려, 발해로 구분하여 사지의 분포와 불상의 출토상황을 간략하게 정리하였다. 고구려 불상이 출토된 불교사원지는 평양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발해 불상은 동해안의 교통중심지인 북청 일대에 소재한 사원지에서 출토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제III장에서는 고구려, 발해 불상이 출토된 사원지의 분포상황과 당시 도성과의 관계에 대해 고찰하였다. 고구려 사원지의 중심 분포지였던 평양에서는 안학궁 외부, 장안성

78) 양은경, 「고구려 금동불 광배와 중국 산둥지역 불상 광배」, 『고구려 불상과 중국 산둥 불상』, 동북아역사재단, 2007, 108~125쪽.

79) 리준걸, 「함경남북도일대의 발해유적유물에 대한 조사보고」, 『조선고고연구』 1, 1988, 98쪽; 김중혁·김지원, 「신포시 오매리 절굴1호발해건축지 발굴보고」, 『조선고고연구』 2, 1990, 17쪽; 김중혁, 「우리나라 동해안 일대에서 조사발굴된 발해의 유적과 유물」, 『발해사연구논문집』 2, 백산자료원, 1997, 233~234쪽; 김남웅, 『문헌과 유적으로 본 구들이야기 온돌이야기』, 연국대학교출판부, 2004, 228~240쪽.

내외부에 소개하고 있었다. 즉 이러한 불교사원지는 당시 도성 안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산성보다는 평지성에 집중 분포되어 있었다. 발해 사원지는 당시 5경 중 한 지점으로 추정되는 남경남해부와 그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즉 북한 내 고구려, 발해 불상이 출토된 사원지는 당시 도성 내외부의 교통요충지에 소개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제IV장에서는 북한 내 고구려, 발해 불상의 계승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자료의 영세성으로 인해 논지전개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고구려 멸망 이후 평양지역의 불상양식이 동해안에 소개한 발해 불상의 조성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못하였으나 전통적인 요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음을 남아있는 유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北韓의 佛教寺院址 출토 高句麗, 渤海 佛像 연구에 대한 토론문

임석규(武藏野美術大學)

양은경 선생의 본 연구는 현재 북한 영역내의 절터에서 출토된 고구려, 발해 관련 불교문화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유물간의 상호 연관성을 파악한 것이다.

먼저 발표내용을 살펴보면 제Ⅱ장에서는 북한 내에서 불교유물이 출토된 불교사원지에 대해 고구려, 발해로 구분하여 사지의 분포와 불상의 출토상황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고구려 불상은 주로 평양에서, 발해 불상은 동해안의 교통중심지인 북청 일대에 소개한 사원지에서 출토되었음을 확인하고 있다.

제Ⅲ장에서는 고구려, 발해시대 절터들이 안학궁과 장안성 또는 발해의 남경유지 등을 예로 들면서 당시 도성 또는 교통요충지에 소개하고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

제Ⅳ장에서는 북한 내 고구려, 발해 불상의 계승관계에 문제를 다루었는데, 특히 오매리사지 출토 금동보살입상과 청해토성 출토 금동광배 등에서 고구려의 전통이 남아 있다고 보았다.

질 문

고대국가에서 불교는 모두 왕실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발전했으며, 당연히 도성주변에 소개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중국이나 북한의 미술사적, 고고학적 성과가 아직까지는 미비하기 때문에 어떤 결론을 도출하기는 쉽지않은 상황이다. 이런 점에서 이번 발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1. 발해의 불상과 관련해서는 상경과 동경지역 출토 불상들의 현상으로 미루어 지역적 차이를 논한 글들이 몇 편 발표된 바 있다. 혹시 남경지역의 발해유물이나 유적에서도 이런 양상이 보이는지?

2. 평천리사지출토 유물 중 투각인 왕상 1구를 소개하였는데 이 상은 인왕이 아니라 각각 양 손에 칼과 창을 들고 있는 신장상이라고 생각하는데 발표자의 견해는? 그리고 금동관 상부에 표현된 것을 은행나무라고 봐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3. 오매리절터 유적은 건물배치가 1답3금당이기 때문에 고구려를 계승했다고 보았다. 그런데 우선 오매리는 답의 평면이 4각형이라 대부분 8각인 고구려의 답들과는 차이가 있다. 그리고 건물배치도 전형적인 고구려의 1답3금당식과는 다른 것 같은데 발표자의 견해는?

4. 청암리토성 부근 출토 금동관 2점에 대해 발표자는 ‘발견상황과 수량, 형상에서 판단할 때 나무 혹은 건칠계보살상의 보관으로 여겨진다.’라고 언급하였다. 불상의 보관일 것이란 생각은 다른 연구자들도 이미 언급한 바 있지만 굳이 건칠보살상의 보관일지도 모른다고 언급한 이유가 있는지? 우리나라에선 아직까지 12세기 이전의 건칠 불상은 발견된 예가 없다.

